

## ▶ 달러/원 주간 전망

### • 美·日 정책회의 등 빅 이벤트 '접점이'..불박이 장세 이탈할까

서울, 7월29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 통화정책 회의와 국내외 핵심 경제지표 결과를 소화하면서 1380원대 이탈 시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되는 주간 환율 범위는 1365-1400원이다.

금주 가장 주목되는 이벤트는 단연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정책회의다. 미국의 디스 인플레이션 추세를 바탕으로 9월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한 시장은 이번 연준 회의를 통해 연내 금리 인하 폭을 본격적으로 저울질할 전망이다.

로이터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연준은 이달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하고, 올해 9월과 12월 두 차례 금리를 낮출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미국 금리선물시장에서는 올해 약 3차례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반영 중이다.

이러한 시장 기대를 넘어설 만한 깜짝 회의 결과가 나올지 관건으로 연준 이벤트에 대한 시장 해석과 전망을 따라 최근 박스권 흐름을 고수 중인 글로벌 달러가 새로운 방향성을 만들어갈지가 최대 관심이다.

미국 통화정책 만큼 주목받는 이벤트는 단연 일본은행(BOJ) 정책회의다. 7월 BOJ 회의를 앞두고 금리 인상 논의와 채권매입 축소 가능성에 엔 숏 포지션이 급격하게 청산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은 대거 변동성을 키웠다.

그간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엔 약세를 견인한 점을 감안할 때 연준 회의 결과가 최대 변수지만, 이에 앞서 발표되는 BOJ 정책회의 결과가 엔 강세를 더 부추길지 그렇지 않으면 급격한 엔 강세 되돌림을 부추길지 이에 따라 글로벌 외환시장은 또 한번 더 출렁일 수 있다.

한편 영란은행(BOE)도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로이터는 사전조사에서 8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최근 1380원대에서 불박이 장세를 지속 중인 달러/원은 이 같은 굵직한 이벤트를 소화하면서 양방향 변동성 리스크를 맞닥뜨릴 수 있다. 물론 레인지에 갇힌 글로벌 달러가 제대로 방향성을 보인다는 전제 하에서다.

물론 금주 원화에 영향을 미칠 만한 재료는 주요국 정책회의가 끝이 아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등 미국 주요 기업의 실적이 발표되는데 지난주 크게 타격받아 변동성에 취약해진 기술주 주가 움직임도 살펴야한다.

주 후반엔 연준 금리 정책 경로를 재확인시켜줄 미국 비농업 고용지표도 대기하고 있다.

또한, 중국 제조업 지표 발표도 예정돼있다. 강달러 압력 둔화 속 최근 발표된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은 위안을 지지하는 쪽으로 작용하고 있다. 위안을 둘러싼 미묘한 변화가 지속될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한편, 국내도 핵심 경제지표인 6월 산업활동동향, 7월 수출입동향에 이어 7월 소비자물가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국내외 굵직한 이벤트 가운데 최근 상·하방 경직성을 키워 온 달러/원 환율에 유의미한 변화가 생길지 주목되는 한 주다.

(( yena.park@thomsonreuters.com ; +82(010) 62147029;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 주간 세계 5대 이슈

이번 주는 미국 빅테크 기업 실적 증가를 앞두고 시장이 긴장하는 가운데 미국, 일본, 영국 정책당국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중요한 한 주다.

### ⊙ FOMC와 고용지표

최근 며칠간 시장의 가파른 매도세는 31일(현지시간)에 있을 7월 연방준비제도 통화정책회의를 조망한다.

이미 미국 기술주 출렁임에 불안해하는 투자자들에게 연준의 경기 우려 신호는 또 다른 걱정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 현재 투자자들은 통화정책 완화 시기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고 믿고 있다.

미국 금리선물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냉각되고 고용시장이 초기 하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증거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90% 이상 반영하고 있다.

8월2일 발표되는 미국 고용지표는 투자자들에게 금리 인하 기대감을 높인 점진적인 둔화 신호가 7월에도 지속되었는지 평가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로이터가 조사한 이코노미스트들은 지난 6월에는 20만6000개 증가한 일자리가 7월 18만5000개 늘었을 것으로 예상했다.

### ⊙ 기술주 불안

겁에 질린 투자자들은 빅테크 실적이라는 지뢰밭에 직면해 있으며, 실적 부진은 주식 가치 상승에 대한 우려로 흔들리는 시장을 더욱 뒤흔들 수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30일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며, 31일에는 페이스북 모기업인 메타가, 1일에는 애플과 아마존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실망스러운 수치는 24일 S&P 500과 나스닥이 2022년 말 이후 최악의 하루를 보낸 미국 증시의 폭락을 초래한 우려에 다시 불을 붙일 수 있다.

기술주들의 엄청난 상승세가 실적에 대한 높은 기준을 설정했을 수 있다. 최근 기술주 매도세 원인 중 하나였던 구글 모기업 알파벳은 실제로 예상보다 나은 실적을 발표했지만, 투자자들은 AI 인프라에 대한 지출 증가가 마진을 압박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키우며 주가가 5% 하락했다.

### ⊙ BOJ

총리를 비롯한 유명 정치인들이 단기 정책 정상화의 필요성을 시사한 후 일본은행(BOJ)이 31일에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추측이 커지고 있다.

이들 주장의 핵심은 수십 년에 걸친 이례적인 부양책 자체를 끝내야 한다는 게 아니다. 오히려 엔화 약세가 가계와 기업에 미치는 악영향으로 인해 9월에 있을 집권 자민당 전당대회에서 환율이 핵심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달 초 3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던 엔화가 달러당 10엔까지 반등했다는 사실도 7월 금리 인상을 예상하는 이들을 막지는 못했다. 이들은 BOJ가 엔화 강세에 대한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

다. 다른 이들은 취약한 경제와 약한 소비 심리가 차입 비용 상승을 견디지 못할 것이며, 미국 성장 둔화가 이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한다.

#### ⊙ BOE

영란은행은 1일 회의를 연다. 현재 시장은 2020년 3월 이후 처음으로 금리가 인하될 확률을 약 48%라고 보고 있다.

성장률은 완만하고 소비자 인플레이션은 2%로 돌아왔다. 다만, 임금 성장률과 서비스 부문 인플레이션은 영란은행의 정책 결정자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끈질기고 뜨겁다.

다른 8명의 통화정책위원회 위원들이 금리 동결 또는 인하를 두고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는 가운데 신임 부총재인 클레어 롬바델리가 결정권을 가질 수도 있다.

영국 소비자들은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금리 압박을 느낄 수 있지만, 은행들은 확실히 혜택을 누리고 있다.

#### ⊙ 베네수엘라 선거

야당 후보인 에드문도 곤잘레스는 투명한 선거를 약속한 현직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에 맞서 상당한 지지를 얻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약 4년 동안 6자리 수 초인플레이션을 겪었는데 그 수치는 130,000%에 달해 저축은 줄고 생필품은 부족해졌다. 그러나 정부가 신용을 제한하고 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공공 지출을 억제해 연간 인플레이션은 지난해 약 50%로 떨어졌다.

이번 투표 결과와 처리는 향후 미국의 대 베네수엘라 제재를 결정할 퍼즐의 절반이다.

## ▶ 美주식시장/주간전망

### • 겁에 질린 美 주식시장..빅테크 실적, 연준 회의 직면

뉴욕, 7월29일 (로이터) -

불안에 떨고 있는 투자자들은 이번 주 극심한 혼란을 겪은 미국 증시의 단기 궤적을 결정할 수 있는 거대 기술 기업의 실적과 연방준비제도 정책회의, 그리고 고용지표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수개월에 걸친 대형 기술주 랠리가 벽에 부딪히면서 S&P500지수와 나스닥지수는 지난 수요일 테슬라 TSLA.O와 구글 모기업 알파벳GOOGL.O의 실망스러운 실적 이후 2022년 이후 하루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앞으로 변동성은 더 커질 수 있다. 이번 주 마이크로소프트 MSFT.O, 애플AAPL.O, 아마존닷컴 AMZN.O, 페이스북 모기업인 메타플랫폼META.O의 실적은 빅테크 기업의 잠재적 수익 부족에 대한 투자자들의 내성을 더욱 시험할 수 있다.

올해 세계 거대 기술 기업들의 급격한 랠리는 시장을 상승시켰지만, 밸류에이션 상승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S&P500 지수는 여전히 사상 최고치보다 5% 정도 낮고 올해 들어 14% 가까이 상승했지만, 일부 투자자들은 월가가 수익 성장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이어서 기업들이 향후 몇 달 동안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주가가 취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한 투자자들은 수요일 연준 통화정책회의가 끝난 후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해 면밀히 주시할 것이다.

이번 주말에 발표되는 월간 고용 보고서를 비롯한 고용 데이터는 노동 시장의 초기 침체가 더 심각해졌는지 여부를 보여줄 수 있다.

올스프링의 선임 포트폴리오 매니저인 브라이언트 밴크롱카이트는 "지금은 시장에 중요한 시기"라면서 "사람들이 연준이 연착륙할 기회를 놓칠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와 동시에 왜 AI 기업에 그렇게 많은 돈을 지불하는지 의문을 갖기 시작했고, 이는 격렬한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몇 주 동안에는 고공행진하던 기술주에서 소형주 및 금융과 같은 가치주 등 한 해 동안 부진했던 시장 섹터로 이동하는 조짐이 보였다.

러셀1000 밸류 지수는 이달 들어 3% 이상 상승한 반면, 러셀1000 성장 지수는 3% 가까이 하락했다. 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는 이달 9% 가까이 상승한 반면 S&P500지수는 1% 이상 하락했다.

트루이스트의 수석 시장 전략가인 키스 레너는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최근의 불쾌감에서 벗어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은 이러한 주식이 하락했다는 사실에 따라 방향을 잡을 것"이라면서 "제 생각엔 기술주가 너무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실적 호조로 반등하더라도 사람들이 차익 실현을 위해 매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연준이 예상보다 경제가 악화되고 있다는 징후를 보이면 최근 몇 달 동안 시장을 지탱해온 인플레이

이선 둔화와 탄력적인 성장의 내러티브가 훼손될 수 있다.

야누스 헨더슨 인베스터스의 글로벌 솔루션 책임자인 매트 페론은 "투자자들이 데이터에 의존할 것이라는 각본대로 움직일 것으로 보이지만 데이터가 일직선으로 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2분기 예상보다 빠른 GDP 성장률과 제조업 활동 감소 등 경제에 상반된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이번 주말에 발표되는 고용지표에서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거나 반대로 성장률이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면 이러한 전망은 흔들릴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매도세는 과도한 거품을 걷어내는 강세장의 건강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고 헤지펀드 밸류워크 대표인 찰스 레몬이데스는 말했다.

그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성장주들이 언젠가는 또 다른 고점을 찍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예나 기자)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 금주 국내 경제 주요 일정

서울, 7월29일 (로이터) - 이번 주 국내 주요 경제 일정

7월29일(월)

- ⊙ 기획재정부: 1차관 위메프·티몬 판매대금 미정산 TF (09:00)

7월30일(화)

- ⊙ 기획재정부: 2024년 8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계획 (10:00)
- ⊙ 한국은행: 2024년 제13차(7.11일 개최, 통방) 금통위 의사록 공개 (16:00)

7월31일(수)

- ⊙ 통계청: 2024년 6월 산업활동동향 (08:00)
- ⊙ 기획재정부: 2024년 6월 국세수입 현황 (11:00)

8월1일(목)

- ⊙ 산업통상자원부: 2024년 7월 수출입동향
- ⊙ 기획재정부: 세계은행(WB), 2024년 세계개발보고서 발표 (22:30)

8월2일(금)

- ⊙ 통계청: 2024년 7월 소비자물가동향 (08:00)
- ⊙ 기획재정부: 1차관 물가관계차관회의 (08:00)
- ⊙ 기획재정부: 부총리 외국인정책 협업예산 현장방문 (11:00)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서울, 7월29일 (로이터)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날짜	시간	국가	지표	기간	로이터 전망치	이전수치
7월30일	08:30	일본	실업률	6월	2.6%	2.6%
7월30일	18:00	유로존	GDP 속보치 YY	2분기	0.6%	0.4%
7월30일	18:00	유로존	기업환경지수	7월		-0.46
7월30일	18:00	유로존	경기체감지수	7월	95.4	95.9
7월30일	18:00	유로존	소비자신뢰지수 확정치	7월	-13.0	-13.0
7월30일	22:00	미국	월간 주택가격 MM	5월		0.2%
7월30일	22:00	미국	케이스실러 20 주택가격 MM SA	5월	0.3%	0.4%
7월30일	23:00	미국	소비자신뢰지수	7월	99.5	100.4
7월30일	23:00	미국	JOLTS 구인건수	6월	8.025M	8.140M
7월31일	08:50	일본	산업생산 잠정치 MM SA	6월	-4.8%	3.6%
7월31일	08:50	일본	소매판매 YY	6월	3.2%	3.0%
7월31일	10:30	중국	공식 제조업 PMI	7월	49.3	49.5
7월31일	10:30	중국	공식 서비스업 PMI	7월		50.5
7월31일	14:00	일본	소비자신뢰지수	7월		36.4
7월31일	18:00	유로존	조화소비자물가지수 잠정치 YY	7월	2.4%	2.5%
7월31일	18:00	유로존	CPI NSA	7월		126.58
7월31일	20:00	미국	모기지마켓지수	7월26일 주간		209.3
7월31일	21:15	미국	ADP 전국고용	7월	149k	150k
7월31일	22:45	미국	시카고 PMI	7월	44.5	47.4
7월31일	23:00	미국	잠정주택판매 MM	6월	1.3%	-2.1%
8월 1-8 일	08:50	일본	외환보유고	7월		1,231.5 B
8월 1-8 일	23:00	미국	자동차판매	7월		2.760M
8월1일	09:30	일본	지분은행 제조업 PMI 확정치 SA	7월		49.2
8월1일	10:45	중국	차이신 제조업 PMI	7월	51.5	51.8
8월1일	17:00	유로존	HCOB 제조업 PMI 확정치	7월	45.6	45.6
8월1일	18:00	유로존	실업률	6월	6.4%	6.4%
8월1일	20:30	미국	챌린저 해고건수	7월		48.786k
8월1일	21:30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7월22일 주간	236k	235k
8월1일	22:45	미국	S&P글로벌 제조업 PMI 확정치	7월		49.5
8월1일	23:00	미국	ISM 제조업 PMI	7월	48.8	48.5
8월2일	21:30	미국	비농업부문 취업자 수	7월	175k	206k
8월2일	23:00	미국	내구재주문 수정치 MM	6월		-6.6%

• 금주 해외 경제 주요 이벤트 (괄호 안은 한국시간)

7월30일 (화)

- ⊙ 일본은행 통화정책회의 (31일까지)
- ⊙ 연방준비제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통화정책회의 (31일까지)

7월31일 (수)

- ⊙ 일본은행 금리 결정 발표
- ⊙ 연방준비제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금리 결정 발표 (1일 오전 3시)
- ⊙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기자회견 (1일 오전 3시30분)

8월1일 (목)

- ⊙ 영란은행 금리 결정 발표, 회의록 및 통화정책보고서 공개 (오후 8시)

## ▶ 지난주 로이터 한글 뉴스 서비스 주요 기사

### • (단독)-BOJ, 다음 주 금리 인상 검토..채권 매입 절반 축소 계획 발표할 것

도쿄, 7월25일 (로이터) -

일본은행(BoJ)은 다음 주 회의에서 금리 인상 여부를 논의하고 향후 몇 년 동안 채권 매입을 대략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해 대규모 통화 부양책을 꾸준히 거둬들이겠다는 의지를 신호할 것이라고 소식통들이 밝혔다.

BOJ 내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 4명은 소비가 회복되면서 인플레이션을 목표치인 2% 부근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인지가 명확해지기를 정책이사들이 얼마나 오래 기다릴지에 금리 결정이 달려있다고 말했다.

로이터 조사에서 이코노미스트의 4분의 3 이상이 BOJ가 이번 달에 금리를 동결하고 9월이나 10월에 다음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소식통들은 7월30~31일 회의의 결과가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소식통은 "소비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이번 결정은 매우 어려운 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금 당장 행동할지, 아니면 올해 후반에 행동할지에 대한 판단의 문제"라고 말했다.

9명으로 구성된 이사회는 단기 금리 인상의 필요성에는 대체로 동의하지만, 그것이 다음 주에 이뤄져야 할지 아니면 올해 후반이어야 할지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소식통들은 말했다.

6월 근원 인플레이션은 2.6%를 기록해 BOJ의 목표를 2년 넘게 웃돌고 있고, 근로자 기본급은 5월에 30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이는 매파들이 지금 금리를 인상할 여건이 적절하다고 주장하기에 충분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부진한 소비와 가계 심리로 인해 비둘기파는 당분간 인상을 보류하고 감세와 임금 인상이 예상대로 소비를 증가시킬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더 많은 데이터를 기다리자는 입장이다.

소식통들은 물가 상승세가 여전히 온건하고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2%에 가까운 안정적인 상황에서 BOJ가 서둘러야 할 설득력 있는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도 다음 주 회의 결과가 불확실하다고 보는 이유라고 말했다.

한 소식통은 "분명한 것은 BOJ가 아마도 앞으로 몇 달 안에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단지 시기의 문제일 뿐"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소식통은 "BOJ로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금리가 추가 인상돼도 일본의 통화 상황은 여전히 매우 느슨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나머지 두 명의 소식통도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달 회의에서 BOJ는 향후 1~2년 동안 대규모 채권 매입 규모를 어떻게 줄이고 거의 5조달러에 달하는 대차대조표를 축소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 계획도 발표할 예정이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BOJ는 원치 않는 수익률 급등을 피하기 위해 지배적인 시장의 시각에 맞춰 여러 단계에 걸쳐 채권 매입 규모를 점진적으로 줄일 가능성이 높다.

BOJ가 1년 반에서 2년 동안 월간 채권 매입을 대략 절반으로 줄일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는 지난 주 BOJ와 금융기관 간의 회의에서 상당수 참가자가 주장한 속도다.

## • (단독)-해리스, 트럼프에 44% 대 42%로 앞서

7월24일 (로이터) -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캠페인을 종료하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게 배턴을 넘긴 뒤 해리스 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를 2%포인트 차이로 근소하게 앞서고 있는 것으로 로이터/입소스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트럼프가 전당대회에서 당의 지명을 공식적으로 수락하고, 바이든이 후보에서 사퇴한 뒤 해리스를 지지한다고 발표한 후인 22-23일 실시됐다.

전국적으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해리스는 지지율 44% 대 42%로 트럼프를 오차범위인 3%포인트 안에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7월15~16일 여론조사에서는 해리스와 트럼프가 44%로 동률을 기록했고, 7월1~2일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가 1%포인트 앞서며 둘 다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였다.

등록 유권자의 약 56%가 해리스가 "정신적으로 예리하고 도전에 대처할 수 있다"는 의견에 동의했고, 트럼프에 대해서는 49%가 같은 의견을 보였다.

바이든을 그렇게 평가한 유권자는 22%에 불과했다.

민주당 지지 유권자 중 약 80%가 바이든을 호의적으로 본다고 답했고, 해리스에 대해서는 91%가 같은 의견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 유권자의 4분의 3은 당과 유권자들이 지금 해리스를 지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고 답했으며, 4분의 1만이 당의 후보 지명을 위해 여러 후보가 경쟁해야 한다고 답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유권자들에게 무소속 대선 후보인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가 포함된 가상 투표용지를 보여줬을 때 해리스는 42% 대 38%로 트럼프에게 오차범위를 벗어난 우위를 보였다. 이번 조사에서 유권자의 8%가 지지한 케네디는 11월5일 선거를 앞두고 아직 많은 주에서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릴 자격을 얻지 못했다.

한편 로이터/입소스 여론조사에 참여한 많은 응답자들은 해리스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거론되는 민주당 인사들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등록 유권자 4명 중 1명은 이번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러닝메이트 후보 중 가장 높은 지지율(37%)을 기록한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3명 중 1명은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했으며, 호의적이라고 답한 비율도 거의 비슷했다.

여론조사에 참여한 등록 유권자의 절반은 마크 켈리 애리조나 주 상원의원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고, 3

분의 2는 앤디 베시어 켄터키 주지사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온라인으로 실시된 이번 여론조사는 1,018명의 등록 유권자를 포함해 전국 1,241명의 미국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신안나 기자)

(( anna.sheen@thomsonreuters.com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 엔비디아, 中 시장 위한 새로운 플래그십 AI칩 버전 준비 중

싱가포르, 7월22일 (로이터) -

엔비디아는 현재 미국 수출 규제와 양립할 수 있는 중국 시장을 위한 새로운 플래그십 AI 반도체 버전을 개발 중이라고 이 문제에 정통한 세 명의 소식통이 밝혔다.

엔비디아는 지난 3월에 올해 후반 대량 생산될 예정인 '블랙웰' 반도체 시리즈를 공개했다. 이 시리즈 중 B200은 챗봇의 답변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 일부 작업에서 이전 제품보다 30배 더 빠르다.

두 소식통은 엔비디아가 잠정적으로 'B20'으로 명명된 이번 칩의 출시 및 유통과 관련해 중국의 주요 유통 파트너 중 하나인 인스퍼(Inspur)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식통들은 엔비디아가 아직 공식 발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원을 밝히기를 거부했다.

엔비디아 대변인은 논평을 거부했고, 인스퍼는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작년 미국은 중국 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로 첨단 반도체의 대중국 수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

엔비디아는 그 이후로 중국 시장을 위해 특별히 맞춤화된 세 가지 칩을 개발해왔다.

(김지연 기자)

(( jiyoun.kim@thomsonreuters.com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